데살로니가전후서 강해 ㅁ

데살로니가전서 개요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53년경(가장 초기의 편지), 성격: 교회를 위한 서신

수신자: 일차적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고 실제적으로는 모든 신자

특히 데살로니가전서는 새 신자가 우선 읽어야 할 서신, 요한복음: 죄인의 회개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이해: 구약 성경,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살전은 그런 것이 없다. 특히 4-5장의 재림과 휴거의 소망, 귀 뒤 살후

이름: 이 서신의 이름은 바울이 편지를 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유래되었다(1:1).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였으며 거기에는 유대인도 많았고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곳의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하며 약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설립했으며(행17:1-10)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선포함으로 박해를 받았다(행17:7). 사도 또한 그 일로 인해 결국 도시에서 쫓겨나 베레아로 갔다.

주제: 진노 전에 자신의 교회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목적: 성도들에게 주님을 볼 수 있는 재림의 소망을 주어 그들이 고통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내용: 베레아에서 다시 아테네로 피신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서 그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어 그곳의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였다. 사도가 아테네에 있을 때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에 대한 인신공격이 있고 죽은 성도들로 인한 염려가 있음을 알려 왔으며 이에 사도는 그들에게 먼저 자신을 변호한 뒤 박해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다 할 것을 말하며 이미 가르친 적이 있는 진리를 확증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였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모델 교회에 보낸 첫째 편지였는데 이 교회는 나무랄 데가 거의 없는 순전한 교회였다. 이 교회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였다. 그는 그들의 선택, 성령의 사역, 확신, 삼위일체, 재림, 성화, 부활과 휴거, 주의 날, 사람의 삼위일체 등을 가르쳤다. 데살로니가전서는 5장, 89절, 1,857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4장(휴거), 핵심 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 내신 예수님이시니라."(1:10), 핵심 단어: 그리스도의 오심, 핵심 구: "그리스도 안에서"

데살로니가전서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주님, 영적 교훈: "그리스도는 확실히 다시 오신다."

1-3장: 바울의 회상, 4-5장: 바울의 권면

데살로니가: 현재는 데살로니키, 아테네 다음의 큰 도시, 로마 제국은 마케도니아의 수도로 삼음(BC 164년), 바울 당시 인구 20만, 성경의 도시 중 현재도 존재하는 도시 중 하나이다.

배경:

안디옥 교회의 형성(행11:19-30), 1차 선교 여행(13:1-3), 13-14장

2차 선교 여행: 15장 36-41절, 바울과 바나나의 분리, 16장 더베, 루스드라(디모데),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복음 선포하는 것을 막음(16:7).

드로아에 가서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을 만남(16:9), 배 타고 마케도니아로 가서 빌립보에 이름(16:11-12), 루디아, 마귀 들린 소녀, 감옥 간수, 빌립보에서 추방됨.

17장, 데살로니가(빌립보에서 150킬로미터)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 먼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 먼저(14:8-18; 17:16)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침(2): 3주 혹은 길어야 한 달: 여기서 빌립보 교회의 헌물을 두 차례 받음(빌 4:16), 장막을 만듦(살전2:9; 살후3:6-12).

이 짧은 기간에 그는 기독교의 모든 교리: 예수 그리스도, 심판, 재림, 휴거, 부활, 생활

이 기간의 그의 사역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남.

베레아로 쫓겨남(행17:5-10).

다시 핍박을 받고 아테네로 떠남(13절):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두고 옴(14).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떠나기 전에 두 서신을 기록함.

바울 스스로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려고 했음(살전2:17-18).

교훈:

1.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2.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다(롬1:16): 한 달 만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졌다.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으로 왔기 때문이다(살전1:5).
3. 아직도 마귀는 핍박하고 있고 이것이 성장의 기회이다.
4. 유대인 먼저, 이방인 다음: 우리의 경우 일반 교회 교인들, 그 다음 불신자

서신 기록의 이유:

1. 그의 사랑과 염려: 그는 밤에 도망갔다(행17:10). 반대자들이 바울을 비방함(살전2:5).
2. 재림의 소망을 확고히 하기 위해(죽은 자들 문제), 극심한 핍박(주의 날이 임했다고 믿는 사람들).
3. 성화의 삶: 부도덕한 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성행함.
4. 교회의 문제: 지도자들 존중(살전5:12-13), 무위도식자들(살후3:6)

복: 그리스도의 재림(휴거)

데살로니가전후서 강해 ㅁㄹ

위어스비 강해 참조

완전한 교회: 이 땅에 있는가?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다.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완전에 가까웠다.

3주 만에 태어났다. 바울의 감사를 보라(1:2; 2:13; 3:9)

선택받은 사람들(1:1-4)

1절: 바울과 디모데(행16:1, 더베와 루스드라)와 실루아노(행15:40)

교회: 부르심을 받아 선택된 사람들, 마16:18,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부르신다(행15:13-18).

요17: 예수님의 기도에서 7번이나 세상에서 빼내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

구원받은 자들

1.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
2.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결과이다.
3.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는 무한한 희생물을 요구하고 사람 편에서는 거저 받는다.
4. 구원은 믿음을 요구한다.
5.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다. 아버지, 아들, 성령님의 일

2절: 바울의 감사(1:2; 2:13; 3:9)

3절: 구원은 삶의 변화를 동반한다(행2:8-10):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살전1:9-10, 우상들을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옴,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김, 주님을 기다림

삶이 변해야 주님의 자녀이다.

믿음, 사랑, 소망(고전13:13): 구원받은 자의 세 가지 표지

1.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한다(약2:14-26),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적용

2. 사랑: 롬5:5, 요14:15, 서로 사랑하라(살전4:9) ★★★적용 Labor

3. 소망: 롬8:23-24, 딛2:13, 주님의 재림(부활),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소망이 없다. ★★★적용

지역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넘쳐야 한다. 물론 불신자들도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 헛된 믿음, 사랑, 소망도 있다

4절: 선택, 벧전1:2, 롬8:29-30, 예지에 의한 선택

무조건적 선택 No! no Calvinism

본이 되는 사람들(1:5-8)

5절: 복음(말씀)을 받아들였다.

우리의 복음, 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다른 복음 No!(갈1:8-10)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의 죽음, 매장, 부활(고전15:1-4)

선택의 증거, 말로만 이른 게 아니라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다.

1차적인 책임은 설교자에게 있다. 어떤 사람: 행20:19-27, 고전2:4-5

6절: 박해와 고난이 뒤따랐다.

주님으로 인해 박해를 받았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살전2:14-16; 딤후3:12)

성령님의 기쁨으로 박해를 참았다.

그러면서 지도자를 따랐다.

까딱 잘못하면 사람이나 교회를 따르게 된다: 이슬람, 천주교.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적어도 바울 정도 되는 사람(고전11:1)

갓난아기들처럼 새로 태어난 사람들도 양육자와 장소가 필요하다(히13:17).

우리의 현실

어제 한 분이 독립침례교회 진영의 현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려의 글을 보내왔습니다.

사실 저는 한두 달 전 성경 번역 및 재창조론 파동을 겪으며 _ 사실은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지만_ 실상 독립침례교회 목회자들의 인격과 영적 수준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믿음과 바른 교리와 일반 교회 목회자들보다 깊은 성경 지식을 빼고 나면 별로 자랑할 것이 없고 한 꺼풀을 벗은 본디 모습은 초라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한국에서 독립침례교회의 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다들 말은 하면서도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진리를 전하고 구원하려는 절실함은 찾아보기 어렵고 행위 없는 고도의 성경 지식만을 추구하며 마치 취미와 생각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자신들만의 클럽을 운영하듯 현실에 안주하여 '그들만의 리그' 속에 스스로 가두는 행태가 계속되는 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독립침례교회에서 그 어떤 희망을 찾기는 대단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눅10:2)

데살로니가 교회: 선택 받은 성도들(3-4절)

7절: 본이 되는 성도들

마케도니아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게(고후8:1-8)

성도들은(교회는) 남을 세우든지 멸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적용

8절: 말씀을 받고 또 퍼뜨렸다. 울려 퍼지다(sounded out)는 나팔을 부는 것을 뜻함.

사복음서의 끝 부분과 사도행전 시작에는 대위임의 말씀이 있다(마28; 막16:15-16).

우리가 다 고민해야 한다.

미디어 선교의 확산: 좋은 방법, 개인 전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하나님의 선택과 복음 전도는 모순이 아니다. 선택에는 사람의 책임이 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예지 선택, 누군가가 복음을 들고 가야 한다(롬10:14-17).

사도 바울의 여행(20,000킬로미터)

그 결과: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1:9-10)

9절: 어떤 식으로 들어가다: 외적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우상들을 섬길 때는 소망이 없으나 믿으면 부활과 재림의 소망이 생긴다(벧전1:3-5). ★★★적용

<u>다른 종교는 약속할 수 없는 소망</u>

무엇에, 어떤 존재에 하나님 이상의 가치를 두면 우상숭배(골3:5)

믿기 전의 상태(엡2:1-3; 11-13, 시편 115편 4-8절은 우상에 대해 자세히 말한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산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히1:3).

산 자의 하나님(마22:23-32)

크리스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롬9:26),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고후6:16),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께서 쓰신 편지(고후3:3)

교회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딤전3:15), 그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시에 이른다(히12:22).

살아 계신 하나님, 살아 있는 말씀, 살게 된 성도, 살아 있는 소망

10절: 그들의 구원은 재림과 연결된다. 성도에게는 주님의 재림의 소망과 임박성이 있다.

그럼에도 들떠서 다니지 않는다.

예수님은 진노에서 우리를 이미 건져 내신 분(살전5:9-10)

여기의 진노는 7년 환난(살전/살후는 재림의 임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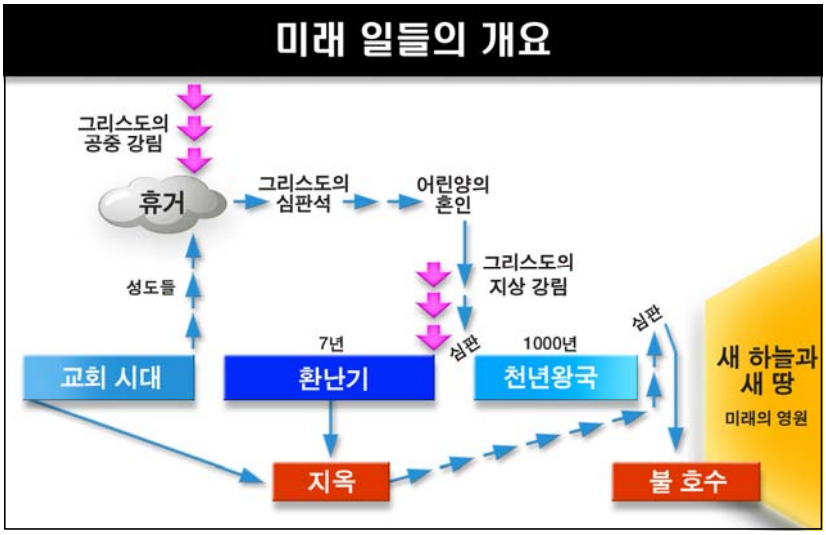
진노(wrath): 198회, 계시록에만 13회(6:16, 17; 11:18; 12:12; 14:8; 16:19; 18:3; 19:15), 하나님의 진노(계14:10, 19; 15:1, 7; 16:1), 원래는 피할 수 없으며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심판, 예언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대개 7년 환난을 뜻한다.

환난(tribulation): 체질하는 과정

주님의 부활은 곧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한다(행17:31).

3절과 9-10절의 매치: 믿음의 행위(하나님께로 돌아섬), 사랑의 수고(하나님을 섬김), 소망의 인내(구원자를 기다림)

<u>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들: 7년 환난기,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 엄청난 부흥</u>



공중 휴거와 지상 강림 비교

	공중 휴거/옮겨짐	지상 강림/왕국 확립
1	모든 성도들이 채여 올라감	채여 올라가는 일이 없음
2	채여 올라간 성도들이 하늘로 감	채여 올라간 성도들이 땅으로 돌아옴
3	땅이 심판받지 않음	땅이 심판을 받고 공의가 확립됨
4	표적이 불필요하고 언제라도 발생 가능함	예언된 표적들, 환난기 이후에 발생함
5	구약에는 없음	구약에 많이 예언되어 있음
6	성도들에게만 해당됨	온 인류에게 영향을 줌
7	주의 진노의 날 이전에 일어남	주의 진노의 날을 끝냄
8	사탄에 대한 언급이 없음	사탄이 결박됨
9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오심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오심
10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심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심
11	그분의 백성만 그분을 봄	모든 사람이 그분을 봄
12	환난기가 시작됨	천년왕국이 시작됨

데살로니가 성도들: 주님의 말씀 전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감, 재림의 소망

재림의 두 단계: 휴거(공중 강림)와 지상 강림

휴거: 성도들을 위해(for) 공중에 임함(살전4:13-18), 7년 환난기(살전5:1-3)

강림: 성도들과 함께(with) 땅에 임함(살후1:5-10; 계19:11-21; 롬8:19, 22-23), 천년왕국을 세움(계20:1-6)

기다린다(wait): 일하면서 능동적으로 기다린다(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무위도식자들이 있었다(살후3:6-12)). 주님의 훈계(눅19:11-27): 므나의 비유, 일해야 한다(13).

"아는 것과 기다리는 것은 다르다." 신랑과 신부와 시부모 이야기

무엇을 기다리는가? 표적이 아니라 주님을(딛2:13)

몸의 구속을(롬8:23-25), 새 몸을 받음(빌3:20-21), 그분과 같게 된다(요일3:1-2), 거할 곳을 받는다(요14:1-6), 천년왕국 이후 새 예루살렘에는 없는 것(계21:4), 보상을 받는다(계22:12).

<u>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들: 7년 환난기,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 엄청난 부흥</u>

언제라도 주님께서 공중에 임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교회가 살아 있는 교회이다. ★★★적용

1. 전도하는 교회(살전2:19-20), 2. 굳건한 교회(살전3:11-13), 3. 근심 중에 기뻐하는 교회(살전4:13-18), 4. 경건하게 사는 교회(살전5:23-24)

굳건한 재림 신앙이 있어야 한다. ★★★적용

우리의 상태 점검: 우리는 선택받은 교회, 모범적인 교회,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인가?

목회자로서의 바울

1장: 복음 전도자로서의 바울

2장: 목사로서의 바울, 교회들을 염려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다(고후11:28)

복음 전도에 사람들을 쓰시듯 양육에도 사람들을 쓰신다. 교회의 목적(엡4:11-12).

신실한 청지기(2:1-6)

목사와 복음 선포자: 복음을 위탁받은 청지기(4절). 내 것이 아니다. 회계보고를 한다(눅16:1-2). 신실함(고전4:1-2; 살전2:4). 바울에게서 청지기의 자세를 배운다.

1. 사역의 형태(1-2절): 1절: 헛되지 않았다.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행16:19) 데살로니가에서 반대에 부딪쳤으나 정진함. 중단하지 않았다. 좋은 일만 생기지 않는다. 많은 싸움을 싸우며: 갈등을 이겨내며, 반대를 극복하며, 운동선수들처럼(고전9:24-27)

2. 메시지의 성격(3절): 권면: 복음을 수용할 것

3. 사역의 방법(3절): 속임수, 부정함, 간사함 No!(미끼로 걸리게 하는 것, 영업사원처럼 하지 않음)

현대 교회들의 전도 방법). 구원은 교묘한 말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다(살전1:5). 수단과 방법도 중요하다.

속임수로 말하는 것(고후4:2)

4. 복음을 위탁받은 자: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하나님(4절, 렘17:9-10)

1장은 복음 전도자, 2장은 목회자로서의 바울

5. 메시지의 전달 방법 및 동기(5절)

아첨하지 않았다. 아첨하는 자들(롬16:17-18, 시12:1-2).

아첨: 남의 환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알랑거리는 것

아첨은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하는 것

죄와 심판에 대해 아첨의 말을 쓰면 안 된다. 동성연애 지지 목사들, 지미 카터

탐심의 탈 No! 개인적인 야욕을 위한 것이 아니다.

돈 문제에서 깨끗했다(고전9장).

6.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6절)

성도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는 것: 디오드레베(요삼 9), 바리새인들(요12:42-43)

사랑 많은 어머니(2:7-8)

어머니의 특징: 부드러움(7절)

그는 사도로서 권위가 있었으나 늘 부드럽게 했다.

곧바로 다른 유모에게 넘기지 않고 부드럽게 양육했다.

아이들은 금방 자라지 않는다. 가르치는 자들(리더)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유모(젖 먹이는 엄마)는 아이에게 자기 생명을 준다(8절).

엄마는 음식을 먹은 뒤 우유로 바꾼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엄마가 잘못 먹으면 아이에게 병이 생긴다.

어머니는 희생하고 참고 양분을 주고 또 보호한다.

양육하는 어머니가 되는 것은 힘들다.

모세의 고백(민11:5-6, 11-15)

염려하는 아버지(2:9-12)

바울은 그들에게 영적인 아버지(고전4:15)

1. 일하는 아버지(9절):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보냈지만 그는 일을 했다(빌4:15-16).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못했다.

무위도식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였다(살후3:6).

일을 하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함(labor and travail).

2. 모범이 되는 아버지(10절), 성도들이 증인이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성품, 의롭다, 흠이 없다(빌2:15).

하나님도 증인이시다.

3.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아버지(11-12): 가르치는 아버지

그들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대했다(일 대 일로).

권면하고 위로했다(격려했다). 꾸짖는 것 외에도 이것이 필요하다.

명하다: 원래 뜻은 증언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엄 있게 자기의 경험과 함께 알렸다.

목적: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걷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요이4)

왕국과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4. 우리는 신실한 청지기, 부드러운 어머니, 그리고 관심을 갖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역자와 지도자들 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성장했다.

성도들이 셋(청지기, 어머니, 아버지) 중 하나의 역할을 해야 한다.

말씀을 수용한 교회(2:13)

13절: 무조건 수용은 안 됨, 베레아 사람들처럼 해야 한다(행17:11).

사역자의 신실함을 판단하고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

그런 사람에게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한다: 변화를 가져온다(요8:47).

많은 교회와 신학교와 목사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말로 받는다.

1. 말씀 보존(시12:6-7; 마24:35)
2. 믿음 구원(엡2:8-9)
3. 영원한 구원(히7:25)
4. 휴거와 부활(살전4:16-18)
5. 환난 전 휴거(살전5:9; 계3:10)
6. 1000년 왕국(계20:1-10)
7. 유대인 보존(창12-15, 신30, 렘31, 33, 사54, 60-61, 롬9-11(11:1, 25-26))

핍박받는 교회(2:14-16)

14절: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하는 증거 중 하나, 복음으로 인한 고난 참여(딤후3:12)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됨,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유대인들: 팔레스타인에서는 직접 박해,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써서(행17:5-6, 13; 행14:2)

15절: 그리스도를 죽임(행2:23), 대언자들을 죽임(마21:33-40; 23:29-37; 행7:52)

우리를 핍박함: 이고니움(행14:1-2), 더베와 루스드라(행14:5-6), 빌립보, 데살로니가(행17:5), 베레아(행17:13)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롬10:2-3)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음: 다마스쿠스 핍박

모든 사람을 반대한다: 역사의 증언, 이방인 멸시

그 결과 반유대주의가 생겼지만 그것 자체는 비성경적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세상의 복이 되도록 부르심(창12:1-3; 22:18).

약속들과 언약들과 말씀이 유대인에게 속하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요4:22).

그리스도, 제자들, 바울 모두 유대인이다.

그들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유:

1. 아버지의 계획을 알지 못해서
2. 율법이 예표임을 알지 못해서
3. 자기 조상들을 따라서
4.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서

16절: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는 자들이 됨(요16:2). 우리는 어떤가?

진노가 그들에게 임함: AD70년의 예루살렘 함락, 성전 파괴, 디아스포라

바울의 위로: 유대의 교회들이 여전히 정화되어 남아 있음, 핍박하는자 들은 스스로 진노를 쌓고 있다.

교회는 늘 핍박을 받기에 지역 교회의 필요가 있다: 서로 돕고 격려해야 한다.

바울의 위로(2:17-20)

17절: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 육신적으로는 떠났으나 영적으로는 아직 잊지 않고 늘 기도한다.

여기는 원래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다. 아이가 부모에게서 강제로 떨어진 상태, 즉 가슴 아픈 상태

18절: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막음, 믿는 자에게도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후12:7).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선한 의도를 가진 자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19절: 보고자 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울의 소망: 언젠가 그들을 본다는 소망, 지금의 너희가 아니라 미래의 너희이다.

고난을 당할 때 과거를 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와 미래에 거해야 한다.

바울과 성도들이 모두 과거와 현재에 고난을 당하나 미래의 영광과 소망을 본다.

딤후4:7-8, 의의 왕관; 여기서는 성도들 자체가 바울의 환희의 왕관

20절: 기쁨이 되는 것(고후1:13-14)

교회 안에 어려움을 주는 자들도 있으나 미래에는 그들이 다 바울의 월계관이 될 것이다.

그 미래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이다. 이때에 유대인들도 돌아오고 성도들은 부활되고 휴거되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의 이 글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성도들의 심정, 목사의 심정

성장하는 교회(3장)

1장과 2장: 바울의 교회 형성과 양육

이제는 성장해서 서야 한다(3:8; 고후1:24).

바울이 조력자를 보냄(3:1-5)

배경: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행17:10-15), 디모데가 아테네에 옴(3:1-2 참조)

1절: 이러므로는 "그들을 사랑하므로", 어머니, 아버지, 형제, 스승으로서

참지 못하여: 디모데를 보내는 것, 이로써 그들을 돕는 것

'남는다'(left) 역시 수동태, 사별할 때 쓰는 말

사역자들의 자세(빌1:22-26; 고후12:15)

2절: 디모데를 보냄

디모데(Timothy, 티모티, 하나님을 공경하다) 바울의 제자. 그는 루가오니아의 더베나 루스드라 출신으로(행16:1; 14:6)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며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딤후1:5; 3:15). 그는 자기 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와 성경 교육을 통해 어려서 회심하였고(딤후3:15) 루스드라에서의 사도 바울의 선포(1차 선교 여행 때)를 통해 작심하고 주의 군사로 사역을 시작하였다. 그는 사도 바울의 고난을 목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아버지처럼 섬겼다(딤전1:2; 딤후3:10-11). 사도 바울이 몇 년 뒤 루스드라에 왔을 때 그곳의 형제들은 그를 높이 평가했으며 이에 사도는 그를 데리고 가기로 하고 유대인들로 인하여 할례를 주었다(행16:3). 디모데는 복음 사역에 전념하면서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그를 섬기며 중요한 일을 감당했다. 바울은 그를 아들로 형제로 불렀고 또 동역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으며 그보다 자기에게 더 가까이 연합된 사람이 없다고 말하였다(롬16:21; 고전4:17; 골1:1; 딤전1:2, 18). 그는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로마에서는 함께 옥살이도 하였다(히13:23). 후에 바울은 그를 에베소에 남겨 두어 자기가 시작한 일을 완수하게 하였다(딤전1:3; 3:14). 그는 바울을 확신하고 사랑하였으며 그래서 바울로부터 많은 칭찬을 들었다(행16:1; 17:14-15; 18:5; 19:22; 20:4; 딤후3:10; 4:5).

누구나 조력자가 되어야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빌2:19-22).

조력자의 조건

1. 그리스도인(우리 형제)
2. 사역자(minister): 섬기는 자, 종, 디아코노스(집사), 새 성도들을 가르치고 세우려면 섬겨야 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새 성도와 기존 성도의 융합
3. 동료 일꾼: 팀 사역을 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는, 보내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 <u>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u>
4. 사명: 성도들 세우고 위로함

3-5절: 교회의 어려움(2:14)

시련과 고난은 우연히 생기지 않고 그렇게 생기도록 미리 정해졌다(고전4:9). 11-13

박해는 당연한 것이다(빌1:29; 벧전4:12):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쉽지 않다(십자가를 지고, 마10:38; 16:24).

핍박 뒤에는 사탄이 있다(3:5; 벧전5:8-9).

마귀가 하는 일: 믿음 약화, 이브 시험(말씀 장난)

디모데는 이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책무를 받음

조력자가 그들을 굳게 세움(3:6-8)

6-8절: 바울이 위로를 받음, 이러한 이유로 데살로니가전서를 쓰게 됨.

서신 기록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

짧은 서신 안에 성경의 중요 교리들이 다 들어 있다.

그 내용은 그가 약 3주 동안 거기서 가르친 것을 정리한 것이다.
성경의 교리를 아는 것이 성장에 대단히 중요하다(딤후3:16-17).
그래야 주님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다(8, 엡4:11-14).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함(3:9-13)

9절: 그 결과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함(요이 4, 요삼3)

10절: 말씀(교리)과 기도 그리고 실행은 같이 가야 한다(삼상12:23; 행6:4).

바울이 밤낮으로 기도한 이유: (1) 그들의 믿음의 성장,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자라게, 채워지게)
믿음은 근육과 같다. 사용할수록 강해진다. 아브라함의 경우
시험을 견딘 믿음만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다.

11절: 바울은 직접 거기에 가기를 원했다(롬1:9-10). 목회자의 심정

12절: 바울이 밤낮으로 기도한 이유: (2) 그들의 사랑의 성장

핍박을 당하면 이기적이 되기 쉽다. 자기만 알게 된다.
"우리만 교회" 등과 같은 자부심
담을 쌓는 사람이 있고 다리를 놓는 사람이 있다.
기도의 응답(살후1:3), 믿음의 성장은 사랑의 성장을 가져와야 한다.
요셉은 13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으나 형제들을 사랑했다. 참 사랑은 어려울 때 나타난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

13절: 바울이 밤낮으로 기도한 이유: (3) 그들이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재림은 거룩함을 촉진시키는 요인이다(벧후3:10-11, 14; 요일3:2-3; 살전4:4, 7; 5:23).
2장의 끝에서도 재림을 생각하게 하고 여기서도 그렇게 함.
그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올 때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1. 지상 강림: 심판석 심판 이후, 모든 성도들과 함께
2. 공중 강림: 여기의 coming은 '파루시아'(스트롱 번호 3951).
함께 있다는 뜻이다(personal presence).
이미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을 끌어올리시고 함께 있는 것, 살전4:16-17
곧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심판
"We are thankful for the coming of Dr. Kim' for this seminar."
이런 경우 coming은 presence.
무엇으로 보든지 중요한 것은 재림의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이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그 본성의 핵심은 거룩함이다.
벧전1;14-19 참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거룩함(holiness)
현대 교회는 거룩함을 잃고 있고 그것을 사랑과 혼동하고 있다. '거룩하다'는 말은 성경에 611회 나오며 사랑은 488회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사랑보다 거룩함에 대해 더 강조하고 있음을 본다. 하나님의 근본 속성은 거룩함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사랑이 아니라 거룩함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거룩하게 경배하여야 한다(출15:11; 대하20:21; 사6:2-3; 계4:8).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시29:2).

살전 강해 MB: 4:1-12,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옳고 그름의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1절의 걷는 것(행하는 것이 아님), 크리스천의 삶은 걷는 것으로 비교되어 있다(엡4:1, 17; 5:2, 8).

걷는 것은 방향 설정의 문제

크리스천 삶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뒤 믿음의 걸음마를 함으로 시작된다.

그 뒤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야 한다(고후5:7).

걷는 것은 진보를 나타내고 또 기운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걷되 빛 가운데서 걸어야 한다(요일1:5-7).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성취할 수 있다.

여기서는 세 가지 걷기가 나온다.

거룩함 가운데 걷는다(4:1-8)

배경: 로마 제국의 비도덕적인 상태, 노예들로 인한 여가, 거룩한 삶은 그들에게 매우 새로운 것이었다.

<u>1절</u>: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분을 기쁘게 해야 한다.

누구나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산다.

나만을 위해 살면 짐승처럼 되기 쉽다.

인간 존재의 목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동기기 되어야 한다(살전2:4).

동시에 사람도 기쁘게 하면 더 좋다. 그러나 단순히 사람만 기쁘게 하면 문제(갈1:10)

우리 안의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다(빌2:13).

에녹(히11:5), 예수님(요8:29).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이상이다. 요나의 경우 하나님의 뜻을 행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는 못 하였다. 우리는 어떤가?

어떻게 기쁘게 할까? 세상의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살므로, 말씀을 읽고 예배와 섬김을 통해

<u>2-3절</u>: 개인적인 순결함에 대한 명령들을 줌: 명령은 군대 용어

음행: 동성애, 간음, 음행, 수간 등 이야기하기 어려운 주제이다.

디모데의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음행의 문제가 있다.

음행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히13:4). 동성애, 간음, 음행, 수간 등

아이러니: 지금 성도들에게 음행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전5:9-11).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세우신 기관은 가정/결혼제도이다(고전7:1-5).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음행하지 말라는 것은 성도들이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 조치이다.

<u>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가 없다</u>.

성적인 부도덕은 성경이 금한다.

<u>4-5절</u>: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므로 하나님이 없는 삶을 나타낸다.

자기 그릇: 자기 몸으로 보는 견해, 자기 아내로 보는 견해(벧전3:7)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을 욕되게 한다(고전6:18-20).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게 한다.

<u>6-8절</u>: 죄를 설교하는 목사에 대한 비난, "크리스천의 죄는 불신자의 죄와 다르다!"

"맞다. 크리스천의 죄는 비크리스천의 죄보다 더 나쁘다."

7절이 대단히 중요하다.

음행은 도를 넘는 것이다. 자기 형제의 그릇을 빼앗으면 안 된다.

음행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

죄를 지어도 크리스천에게는 정죄함이 없으나 슬픔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갈6:7-8): 다윗의 예
구원은 죄를 지어도 되는 면죄부가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는 촉진제이다(살전4:7; 벧전1:15).
하나님의 명령들을 멸시하면 그분의 심판이 임하고 성령님이 근심하게 된다(엡4:30-32).
음행과 같은 더러운 일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성령님이 하시는 일
1. 말씀의 욕구(벧전2:1-3), 롬13:12-14의 일들 No!
2. 유혹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들을 상기시켜 줌(엡6:17). 요셉의 경우
3. 우리가 순종할 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신다.
음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기계를 사면 경고가 있다. 그 경고대로 하지 않으면 기계가 고장난다.
동성애는 경고를 무시하고 기계를 쓰는 것이다. 망가지게 되어 있다.
구약 시대의 삼손, 결국 파멸 당하였다.
음행의 문제는 그 당시 교회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다. 현 시대는 어떠한가?

형제 사랑 가운데 걷는다(4:9-10)

거룩함에서 사랑으로 옮겨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처럼 살면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된다.

9절: 형제의 사랑, 한 가족이므로 사랑해야 한다(요일4:19; 요13:34).
본성대로 행하게 된다. 물고기, 매, 원숭이
크리스천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였으므로(벧후1:4) 사랑하게 된다(요일4:8).
사랑의 수고(살전1:3; 3:6),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의 피와 같다.

10절: 바울은 그들이 더 많이 사랑하라는 격려의 글을 준다.

정직함 가운데 걷는다(4:11-12)

11절: 스스로 일하라.
그리스 사람들은 육체노동을 멸시했다(노예). 바울은 텐트 메이커(살전2:6)의 본을 보임.
그리스도의 재림에 따라 일을 멈춘 사람들이 생겨남(살후3:11; 벧전4:15).
안식교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여러 단체나 사람들이 재림 예언을 했다.
다 틀렸다. 성경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매일 매일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으라고 말한다.
주님 안에 거하면 휴거받는다.

12절: 정직하게는 합당하게, 품위 있게
밖에 있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간증을 보여야 한다(골4:5).
성도로 산다는 것은 많은 노력을 요구한다.
이리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게 된다(엡4:13-14).

살전 강해 ㅁㅁ: 재림의 소망

죽음 이후의 삶을 어떻게 아는가?

살전4:13, 사도 바울 당시의 이교도들(그리스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는 죽음 이후의 행복을 증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확신을 갖지 못했다.

죽으면 끝 혹은 윤회, 현대인들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아무 소망이 없다(엡2:1).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의문

1.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의 미래
2.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떻게 되는가?
3. 이미 죽은 자들과 살아서 남아 있는 자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모두가 죽는다.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은 사람의 불멸에 대해 의논해 왔고 강신술사들과 영매들 은 죽은 자들과 교통을 해 왔다. 현대 과학자들과 의사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경험을 분석하고 있다. 모두 내세가 있다고 증언한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을 아는가? 본 적이 있는가?

살전4:15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안다. 사람의 추론으로 추측해 볼 필요가 없다.

무덤이 끝이 아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죽음: 성경에서 죽음 혹은 사망은 일차적으로 분리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먼저 육체의 죽음은 몸과 혼이 분리되는 것이며(창35:18)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어 그분의 진노를 받는 것도 죽음으로 표현되어 있다(요일3:14). 특별히 영원한 저주를 받아 하나님 앞을 떠나 지옥 불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한다(계20:14-15; 유12). 사망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부가된 형벌이며(창 2:17; 3:19) 그의 모든 후손은 범죄자이고 따라서 그에게 부과된 저주를 공유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므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그분의 생명을 공유한다. 부활 때에 마지막으로 정복되어 발밑에 깔릴 원수는 사망이다(롬5:12-21; 고전15:1-58).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숨을 내어 주다'(우리말 성경은 '숨을 거두다'로 되어 있음)로 표현되거나(시 104:29) '땅으로 돌아가는 것'(창3:19; 전12:7), '혼이 몸을 떠나는 것 혹은 입는 것'(고후5:3-4) 또는 '몸이 거하던 장막을 떠나는 것'(고후5:1; 벧후1:13-14) 등으로 표현되었다. 신자들의 죽음은 '떠나서 집으로 가는 것'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빌1:23; 마26:24; 요11:11; 살전 4:13) 등으로 표현되었다.

부활의 확실성(요11:25-26)

생명의 약속(딤후1:10)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우리는 신약성경의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눅16장: 부자와 나사로의 실화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말씀(요5:24-29)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산 이유(히2:1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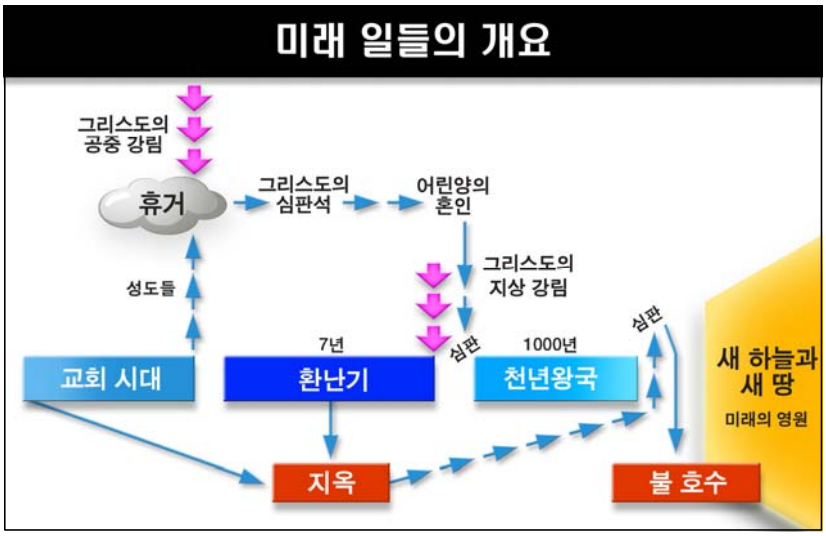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셔서 본을 보여 주셨으므로 믿는 이들은 죽음이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고전 15:12).

사도 바울의 증언(행24:14-15; 26:5-8, 23; 고전15:51-54))

히11장의 믿음의 용사들의 행적: 더 좋은 부활

바울의 요약(고전15:12-19)

우리의 확신은 성경에 있다. ★★★



그리스도의 재림(공중 강림)

데살로니가전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한다. 재림은 다음과 관련이 있다

1. 구원(살전1:9-10)
2. 섬김의 보상(살전2:19-20)
3. 거룩한 생활(살전3:11-13).

<u>살전4:14-15</u>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들의 관계

잠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적용함(요11:11-13)

무엇이 자는가? 몸이 잔다.

사람이 죽으면 영과 혼이 몸에서 분리된다(약2:26).

안식교의 soul sleep No!

1.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다 최종 부활을 기다리며 무덤에서 자고 있다(요11:11, 14; 행7:59-60; 고전15:20; 살전4:14).
2. 반박: 위의 구절들은 몸의 수면을 말하지 혼의 수면을 말하지 않는다(마27:52).
3. 반박 예: 마17:3의 모세와 엘리야, 마22:32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눅16의 부자와 나사로, 고후5:8; 빌1:23; 계6:9-11
4. 여기서 더 나가면 영혼 멸절설로 이어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과 혼이 몸을 떠나 즉시로 주님과 함께 있다(고후5:8; 빌1:23).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즉시로 지옥 불 속에 들어간다. 둘 다 살아 있다.

무덤에는 몸만 있다. 사람 자체는 천국 혹은 지옥에 있다.

사람은 항상 영과 혼 과 몸

그러므로 천국에서도 지옥에서도 중간 단계의 어떤 몸을 입고 있다(soulish body).

이 몸은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부활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영과 혼과 soulish body)이 그분과 함께 온다(14).

그분과 함께 오려면 먼저 그분과 함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위로가 된다.

부인을 잃어서 슬픔을 당한 사람의 예: “부인을 잃게 되었으니 참으로 유감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잃어버리는 것: 장소를 모르는 경우에 해당됨.

언제 오시는가? 아무도 모른다. 시한부 종말론의 위험성(안식교 1848년, 다미 선교회 1992년 10월 28일, 해롤드 캠핑 1994년, 2011년)

15절의 우리는 바울을 포함하고 있다: 바울은 재림의 임박성을 믿었다(고전7:29-31).

우리 역시 재림의 임박성을 믿는다: 표적을 기다리지 않는다.

휴거에는 순서가 있다: 부활 성도, 그 뒤 우리

살전 강해 18: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16)

공중 강림: 소리,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 뒤에 땅에서 심판 등 No!

행17:32: 사도 바울이 부활을 선포하자 조롱을 받음. 그리스 사람들과 대부분의 이교도들은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었다(윤회). 그런데 바울은 몸의 부활을 선포함. 몸이 이미 썩었는데 어떻게 부활하는가?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부활이 어리석음으로 보임.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것이다(고전15:12-16).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있음을 몸소 보여 주셨다(히2:14-15).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임하시면 호령을 하실 것이며 이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16절; 요11:43).

그러면 그분께서 죽어 있는 몸의 원소들을 다시 모으는가?

Yes(계20:13)

사람의 몸은 28개 원소, 몸의 세포가 변하므로 몸은 7년마다 변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적 몸의 원소를 사용하는가?

나무 밑에 묻으면 나무가 원소를 가져감. 고기들이 먹음.

그러므로 정확히 내 몸에 있던 원소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

그런데 물체를 구성하는 원자는 같음, 수소 원자: 내 몸의 것이나 다른 몸의 것이나 같음

그래서 고전15:35처럼 묻는 사람들이 있다(고전15:35-38).

씨는 썩고 거기서 그것과 유사한 것이 열린다.

42-44절 참조, 영에 속한 몸

한 가지 확실한 것: 처음 몸이 없으면 영화로운 몸 불가능

부활은 씨가 식물이 되는 것과 같다. 씨와 열매는 다르다. 그럼에도 두 개는 연속성을 갖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영화로운 몸을 갖는다(빌3:20-21).

우리의 죽은 몸은 땅에 묻은 씨이고 부활의 몸은 그 씨에서 나오는 열매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다(요5:28-29; 계20:1-6).

1. 첫째 부활: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것, 생명의 부활
2. 둘째 부활: 7년 환난기와 1000년 왕국이 끝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악한 자들의 부활이 있는데 이것은 정죄(심판)의 부활이다.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무덤이 끝이 아님을 보여 준다.

죽으면 몸은 무덤으로, 영과 혼은 주님께로 간다(빌1:20-24).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살전4:14). ★★★ 적용

휴거의 소망(17)

<u>살4:17</u> 휴거(rapture)는 '희열의 상태로 채여 올라간다'는 뜻이다.

1. 빠른 속도로 데리고 가다(행8:39), 빌립, 순식간에 휴거된다. 그분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한다.
2. 강력한 힘으로 채가다(요6:15).
3. 자기를 위해 자기의 것을 요구하다(그리스도의 관점)
4. 새 장소로 옮기다, 바울의 셋째 하늘 방문(고후12:1-4)
   그리스도께서는 거할 곳을 마련하러 가셨고 그것이 예비되었으므로 다시 오신다(요14:1-3).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이다.
5. 위험에서 구출하다(행23:10): 교회는 다가오는 환난기의 위험에서 구출을 받는다.
6. 휴거는 오순절 이후에 드러난 신비이다: 부활은 알려진 사실

믿지 않는 자들의 반응: 휴거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며 수백만 명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 외에는 모두 의아해 한다.

주님의 재림은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진다(고전15:52).

믿는 자들(주니께 속한 모든 사람, 부분 휴거 불가능)을 위해 오시는 주님은 공중에 임하시며 여기서 우리가 그분을 만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오시든지 우리를 위해 오신다. ★★★ 재림의 확신

휴거는 환난 전에 일어난다: 계4-19장은 교회 성도들과 상관 없다(살전1:1; 5:9; 계3:10; 눅12:36 등).

7년 환난기: 다니엘의 70이레의 마지막 한 이레(단9:25-27)

재림 날짜 세기 No!

연합의 소망

살4:17-18 우리는 모두 공중에서 그분을 만날 것이다.

땅에서 믿음으로 걷다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그분을 보며 우리도 그분처럼 될 것이다(요일3:2). 얼마나 놀라운 만남인가?

그것은 영광스런 만남이다: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므로 그분께서 다시 올 때에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모두 영광으로 바뀔 것이다.

창조 세계도 그분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다(롬8:17-19).

그분과의 만남은 회계 보고하는 자리이다

그곳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롬14:10; 고후5:10).

행위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

이 심판 자리는 흰 왕좌 심판 자리와 다르다(계20:11-15): 오직 불신자들만

우리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만나 연합한다.

죽음은 분리하지만 재림은 연합한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보았듯이 우리도 서로를 알아볼 것이다.

우리는 재림의 말씀들로 서로 위로해야 한다(18).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적 중 하나는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다.

재림을 기다리기에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한다(벧후3:10-11).

재림의 지식이 귀중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황금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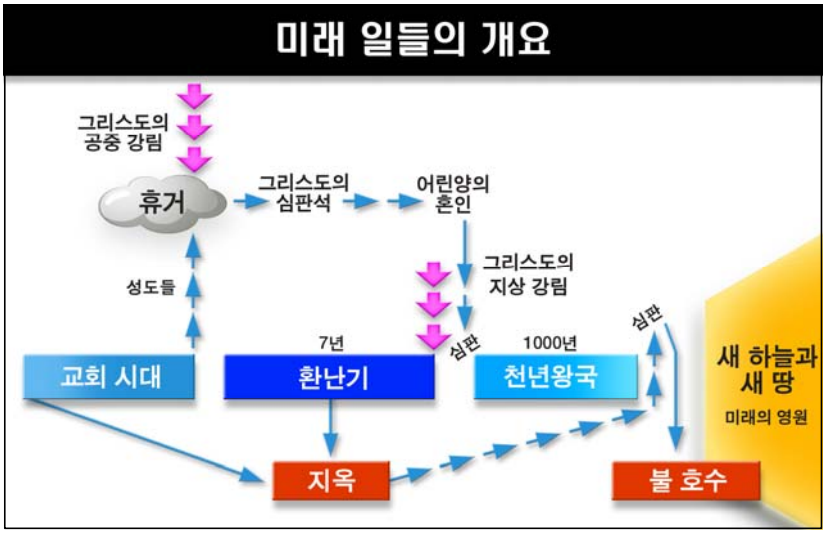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어느 때라도 오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 일을 할 것이다.

무디는 그의 능력의 비밀을 묻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수년 동안 설교할 때마다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 왔다."

뛰어난 영국의 성경 주석가 캠벨 몰간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매일 밤 내일이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다."



살전 강해 11: 5:1-12, 거룩한 삶을 살자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

1-2절: 그러나(반전, 살전 4자의 휴거와 비교해서)

그 때와 그 시기, 주의 날: 신구약 성경의 대주제 중 하나

그 때와 시기(행1:7): times and seasons, 주로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다(단2:21).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향한 때를 미리 작정하셨다(행17:26).

특히 이스라엘을 중요한 민족으로 세우셨다.

어느 면에서 시계의 바늘과 같다.

주님은 특히 이스라엘을 향해 때와 시기를 정했고 이 모든 것은 '주의 날'(Day of the Lord)이라는 무서운 때에 최고조에 달한다.

날: 날은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시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24시간 하루(창2:3)

히브리 사람들의 날은 저녁때에 시작되었다(창1:1-5; 레23:32). 창1:5 참조

별 다른 언급이 없는 한 '날' 혹은 '하루'는 문자 그대로 24시간을 가리킨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된 날 - 대개는 주의 날 혹은 그리스도의 날(살후2:2)로 불림 - 은 그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기간이다(사2:12; 겔13:5; 요11:24; 살전5:2).

아닌 경우는 따로 설명되어 있다(벧후3:8).

아담 이후로는 '사람의 날'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

주의 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민족들을 벌하시는 때

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암5:16-20; 욜2:1-2; 습1:14-18; 사2:12-18)

다른 말로는 '야곱의 고난의 때'(렘30:7), 환난기(계4-19)

시작은 휴거 이후, 총 기간은 7년 환난기와 1,000년 왕국

주의 날 역시 어둠과 빛을 포함한다.

처음 7년은 어둡고 무서운 시기(밤), 나중 1,000년은 좋은 시기(낮)

날(day)	
어둠(밤)	빛(낮)
7년 환난기	1000년 왕국

1절: 쓸 필요가 없다.

바울은 3주 동안의 짧은 기간에 이미 인류 역사, 이스라엘 등에 대해 다 설명하였다.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도(살후2:5)

휴거 부분만 살전 4장에서 설명함

2절: 밤의 도둑같이(마24:42-43), 주의 날은 그들에게 도둑처럼 갑자기 임한다.

바울은 여기서 살전 4장의 휴거와 연관된 주의 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은 모르고 있다.

휴거 날짜가 아니라 휴거와(살전4) 그 뒤의 주의 날(살전 5장)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함을 우리 성도들은 확실히 알고 있다.

기대하고 있는 사람과 아무것도 모른 채 놀라는 사람

3-5절: 여기부터는 '우리'(성도)와 '그들'(불신자)이라는 대명사에 유의해야 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재앙이 닥치기 전에 거짓 평화와 안전을 누리고 있다.

New World Order, New Age

그들, 너희(우리) 단어 조심,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외친다. 사실 적그리스도의 정책(단8:25)

노아 당시: 8명만 구원받음(벧전3:20), 롯 당시(창19:12-14), 주님의 예(마24:37-39; 눅

17:26-30)

주의 날은 해산의 고통처럼 임한다(사13:6-13): 창세 이후로 없는 큰 환난(마24:21)

주의 날의 목적: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과 권능 가운데 왕국을 세우는 것(마24:30), 에덴동산에서의 일을 끝마치는 것

4-5절: 너희 즉 성도들은 어둠(7년 환난기) 속에 있지 않다.

사실 성도들은 휴거받아 이 땅에 없다. 우리에게는 그 날이 도둑처럼 덮치지 못한다.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사람과 술 취한 사람

6-8절: 정신을 차린다(6절)는 술 취하지 않은 것을 뜻함.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은 흰 옷 입고 금식하고 잠자지 않는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다(행1:10-11)

천국에 가는 것과 주님을 만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구원과 보상은 다르다. 주님을 부끄럽게 만나는 성도도 있다(고전3:15; 요일2:28).

고의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신자가 세상과 짝하는 신자보다 더 복되다.

우리는 낮의 아들로서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살지 않는다(롬13:12-13).

일어나서 정리하고 옷을 입고 준비한다.

7절: 고대에는 낮에 술 취하는 것을 큰 불명예로 여겼다(행2:15 참조).

8절: 믿음과 사랑의 흉갑(가슴), 구원의 소망 투구(생각): 믿음, 소망, 사랑(살전1:3)

구원의 소망은 구원이 가져다주는 소망을 뜻한다.

구원: 과거(죄의 형벌), 현재(죄의 권능), 미래(죄의 존재)

구원받는 사람과 심판받는 사람

9절: 위로와 확신이 되는 말씀, 고대 전쟁터의 군사들(제물을 바치고…)

앞뒤 문맥상 여기의 진노는 주의 날의 진노이다(살전1:10).

환난 통과설, 믿는 자들이 주의 날을 통과하는가? No.(계3:10)

요16:33; 행14:22 등의 환난은 7년 환난기의 환난과는 완전히 다르다.

구원받았는가? 심판이 있다(히9:27)

10절: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자든지 깨어 있든지 상관이 없다.

함께 산다(요14:3).

11절: 서로 위로하라(살전4:18). 세워 주라(롬14:19)

살전 강해 12: 5:12-13, 목사와 성도

12절: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리더들이 있었다. 평등과 동등의 문제(갈3:27-29

리더십이 없으면 어떤 단체라도 망할 수밖에 없다(정부, 교회, 가정).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리더십을 주셨다(엡4:7-16, 특별히 11-12절; 벧전5:1-5).

교회의 리더십: 목사와 집사

1. 질서를 위해 지도력이 필요하며(딛1:5) 목사를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진다.
2. 교회에 신사만 있지 않다. 너무나 추한 모습이 교회에 존재한다(딛1:10-11).
3.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목사가 문제가 된다: 리더이기에, 성추행자, 논문 표절자, 횡령, 재산 축적(교회에서 장사)

목사가 없는 교회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있는 교회를 한다.

1. 목사는 성도들 가운데서 나온다.
2. 목사가 있는 교회는 목사만 문제없으면 대개 아무 문제가 없다.

목사: 감독, 장로, 목사는 같은 직분(Office)에 대한 용어이다(딛1:5; 7; 벧전5:1-2; 4; 행20:17; 28)

Office 설명(딤전3): 누군가가 부여하는 것이다. 부여한 권위가 허락하지 않으면 더 이상 Officer가 될 수 없다. 대통령의 예

1. 감독(Episcopos, 감독하는 자, 직무의 의무)
2. 장로(Presbuteros, 치리하는 자, 직무의 위엄)
3. 목사(Poimen, 목자, 직무의 목적)
   a. strong #4166, 총 18번, 요10:14, 유일하게 엡4:11만 pastors
4. 역사를 통해 감독과 장로라는 용어들이 성경적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를 쓴다.

목사의 목적: 교회를 돌보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

1. 교회의 영적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엡4:11-16)

목사의 필수조건: 하나님의 부르심

1. 어떻게 아는가? 신학교, 열정, 의욕 No!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2. 원함이 있어도 부르심이 없으면 목사가 될 수 없다. 부르심이 없는 목사는 불행하다.
   a. 언변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1)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2) 천장 바라보거나 사람을 똑바로 보지 못하면 문제
   b. 책을 보고 해석할 줄 아는 능력
      1) 문맥 설교
      2) 조직 신학 설교
   c. 아내와 가정이 함께 해야 한다.
   d.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원만해야 한다: 독선적, 편집증 같은 정신 질환
   e. 초신자는 안 된다: 적어도 몇 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f. 지배하려 하면 안 된다(고후1:24)
3. 하나님이 부르시면(call) 교회가 임명하고(ordain) 성령님께서 그들을 그 직책으로 구분하신다(행13:1-4).
4. 부르심 이후에(혹은 부르심과 함께) 준비가 필요하다.
   a. 사귐을 통해서(바울과 바나바)
   b. 목회자를 통해서(바울과 디모데), c. 책을 통해서

목사의 자격: 딤전3:1-7, 딛1:6-9
목사의 의무: 살전5:12, 수고하고 감독하며 훈계함

1. 지도(인도)하는 것(장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양들을 인도한다(먼저 본을 보임으로, 감독함으로 벧전5:2-3 참조). 목사는 반드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양들이 이끌고 나가는 교회는 성경에 없다. 목사는 독재자가 아니며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인도자이다.
2. 먹이는 것(목자): 양떼를 말씀으로 먹여야 한다(행20:28). 목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말씀 상고와 설교와 가르치는 것이다. 그 외의 것은 부차적인 것이며 교회의 다른 사람들이 대신 할 수 있다. 엡4:11은 pastor and teacher를 하나로 묶고 있다. 우리말 목사도 목자요 선생님을 가리킨다(딤전3:2).
3. 경계하고 보호한다(감독): 목사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여 양떼를 보호해야 한다. 목사는 자신, 교회, 종교적인 이리떼들, 이단들, 잘못하는 자들을 늘 주의 깊게 살피고 또 병든 자들을 돌아보아야 한다.

교회의 의무(살전5:13)

1. 귀중히 여기고 화목하게 지낸다(롬12:18; 14:19).
2. 교회는 목사의 지도력에 순복하고(히13:17)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의 필요를 채워 주고 그를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살전5:13).

질문

1. 목사는 반드시 복수여야 하는가?(행14:23; 행20:17; 약5:14), 부목사, 조력 목사(누구를 섬기는가? 여호수아, 디모데)
2. 목사는 신학교를 나와야 하는가? 유튜브 Q&A
3. 목사는 은사가 아닌가?
4. 목사를 형제라고 불러야만 하는가? 목사라고 하면 로마 카톨릭 성직체계, 목양자, 호칭 문제, 사모님, 다른 교회 목사님
5. 목사는 직업을 갖고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목사의 사례비는 어느 정도(나하고 비기지 말라), 목사의 교회 시무, 보험, 연금 등
6. 목사를 그만 두면 어떻게 되는가? Office(직무), 관례

좋은 교회의 태도: 목사와 성도의 관계

목사는 성도들의 요청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하고 특히 어려운 형제들의 사정을 도와야 한다.

살전 강해 13: 5:14-28, 크리스천 가족 관계

데살로니가 교회 칭찬(살전1:3-8), 바울의 사역(2장), 성장하는 삶(3장), 거룩한 삶(4:3), 그리스도의 재림: 부활과 휴거, 주의 날(5장), 목사와 성도

14절: 바울은 성도들을 가리켜 형제들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했다(히2:11). 형제 알레르기, 유교 문화

바울 서신서에 적어도 60회, 그런데 살전/살후에만 24회 사용함.

교회의 목사는 섬기는 일을 가르쳐야 한다(엡4:12). ministry

특히 강건한 성도, 오래된 성도가 먼저 해야 한다(딛2:3-5의 자매들).

독립 교회에서는 이것이 잘 안 된다.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목사 말만 듣겠다고 한다.

특히 교회가 가정과 비슷함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한다.

제멋대로 행하는 자(법을 지키지 않는 자, 살후3:6, 11)

교회의 가족 관계 내에서도 법과 규칙이 있다.

법이 창의성을 억압하면 안 되지만 있어야만 한다.

경고가 필요하다(딛1:10-11).

마음이 약한 자(낙심하는 자, 부정적인 자, 그만 두는 자), 위로와 격려 필요

연약한 자(믿음이 약한 자, 자라지 않는 자), 롬14:1-15:3, 고기, 음식 문제, 유대인들의 날들을 지키는 문제, 이들을 붙들어 주어야 한다. 자유를 사용하지 못한다.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목사와 성도들의 조건)

15절: 롬12:17-21

대단히 힘든 요구사항

칭찬과 인정만 받으려 하면 이 일을 절대 할 수 없다.

많은 경우 선하게 공정하게 행하고 심판은 주님 만나는 자리에서

16절: 기뻐하라(느8:10).

하나님은 기쁘게 섬기는 자들과 기쁘게 헌금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후9:7).

기쁨이 없으면 섬김의 짐이 벗겨지지 않는다. 빌4:4,6; 롬14:17, 소망이 없으면 기쁨이 없다.

17절부터는 예배의 요소에 대해 이야기함: 기도(17), 찬양(18), 말씀(19-21)

예배가 바르게 되어야 섬김이 바르게 나온다.

예배가 문제가 있으면 모든 것이 꼬인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의 의미를 항상 되새겨야 한다.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루 종일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다.

나침반과 비슷한 것,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초대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온 교회가 기도에 열심이었다는 점이다(행1:13-14; 4:23).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들을 아신다(시37:4).

우리가 침묵할 때에도 그 소원들에 응답하신다(시10:17; 21:2).

18절: 감사하라(찬양).

시편과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엡5:19)

말씀과 찬양의 관계(골3:16)

기도에도(빌4:6)

하나님의 뜻(살전4:3)

19-20절: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초대 교회에는 성경이 없었으므로 대언하는 자들이 있었다.

목사의 대언과의 차이점 설명

종종 이들은 다른 나라 말을 썼다. 그래서 대언, 방언, 지식의 은사가 그룹으로 나타난다(고전13).

지금은 완전한 성격 책이 있으므로 대언자, 사도, 신유 은사 없다.

'억누르다'에 해당하는 quench는 물을 붓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불로 인식되었다: 권능, 순결, 빛, 온기, 소멸 등 의미

성령님이 작용하면 따뜻함이 있다. 개인의 선물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딤후1:6).

불을 끄는 사람: 율법주의자, 형식주의자

불을 너무 세게 지피는 자: 광적인 신자, 최근의 오순절 은사집회, 신사도 운동

간증 집회는 잘못된 불을 지피는 경우가 많다.

21절: 그러나 거짓 영들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므로 모든 것을 시험해 보아야 한다(고전12:10; 요일4:1-4).

이것에 대한 규칙(고전14:29-33). 혼란이 생기면 안 된다.

다시 강조: 이 시대에는 대언자와 사도가 없다.

선한 것을 붙든다(22절과 연결): 목사는 잘 가르치는 자여야 한다(딤전3:2), 잘 배워야 한다.

22-23절: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예배의 목적: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양심을 깨우고 하나님의 진리로 생각을 먹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생각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열며 하나님의 목적으로 의지를 돌이키는 것이다(시29:2).

균형 잡힌 삶: 부정적인 명령(22절), 긍정적인 기원(23절), 두 가지가 겸비되는 교회

거룩히 구별되다(성별): 위치적 성별(히10:10), 실제적인 성별(고후7:1), 완전한 성별(요일3:2)

영과 혼과 몸(히4:12), 주님의 재림, 흠 없이 보존한다. "유튜브 영혼육 1시간에 떼기"

24절: 신실하신 분(고전10:13)

25-28절: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25절: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바울이 23절에서 하는 것처럼)

26절: 거룩한 입맞춤(행20:37; 롬16:16; 고전16:20; 벧전5:14)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에게 함

27절: 성경을 읽을 것을 강조함(특히 공적으로)

살전은 서신서들 중 첫째 것임, 회당에서 구약성경을 낭독함(눅4:16; 행15:21)

28절: 그리스도의 은혜(시작도 은혜 살전1:1), 짧은 축복 기도, 긴 것(고후13:14)

살전/살후 강해 14: 살후1:1-12(살후 m1)

부활 및 재림 등에 대한 전서를 받은 뒤에도 여전히 문제가 풀리지 않음. 핍박이 심하니 이미 환난기에 들어간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 바울에게서 왔다는 편지가 유행함, 내용 "주의 날이 이미 임하였다." 이에 회중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또 어떤 이들은 일도 그만 두고 재림만 기다림.

벧전5:7-8에 있는 것처럼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희생자가 발생함

우리 역시 1992년 10월의 다미 선교회 사건, 이 사건 뒤 재림 이야기도 꺼내지 못함

데살로니가후서의 주제: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목적: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거짓 가르침에 대해 경고를 주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날(휴거)의 관계를 바로 알려 주는 것

내용: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일도 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사는 것을 보고 사도는 이 문제를 바로 가르쳐 주기 위해 먼저 그들이 복음으로 인해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위로를 주고 주의 재림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설명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 주며 무질서하게 걷는 자들을 지목하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날 것을 권면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특히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때의 세상 풍조 등을 잘 보여 준다.

핵심 장: 2장(그리스도의 날과 죄의 사람), 핵심 절: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자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2:13)

<u>1-2절</u>: 문안 인사

1-2절은 바울 서신서의 공통 인사, 은혜와 평강

<u>3절</u>: 바울의 감사(살전5:18)

1. 성도들의 믿음 증대: 많은 경우 믿음의 성장은 고난을 통해 이루어진다(살전2장). 히11
2. 헛되이 고난 받을 필요는 없지만 고난이 오면 잘 이겨야 한다.
3. 성도들의 사랑 충만: 아가페 사랑(살전3:12)
4. 건강한 교회(살전1:3)

<u>4절</u>: 바울의 자랑

1. 고난과 핍박이 인내와 성숙을 이룸(약1:1-5)
2. 실제 핍박과 환난(고후11:23-25; 롬8:35), 현대 성도들은 거의 알지 못함
3. 역사적으로 중세 암흑시대 천주교의 핍박
4. 그 이후의 국가 교회들의 핍박
5. 현 시대, 공산주의자들과 모슬렘들의 핍박
6.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자랑의 근거가 됨(고후1:4-5; 8)

<u>5절</u>: 현재의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미래는 밝다.

1. 고난이 사실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성도들을 위해 그분의 계획을 펼치는 것을 보여 주는 징표
2. 이것은 예수님의 경우에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
3.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빌1:28-30).
4.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딤후3:12-13; 행5:41-42).
5. 고난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고 구원의 증표
6. 후에는 불신자들이 고난을 당한다.

<u>6-7절</u>: 재림의 때에 하나님이 보답하심

1. 성도는 안식, 불신자는 고난
2. 하나님이 의로우시므로
3. 그래서 성도는 긴 안목을 가지고 산다(고후4:16-18).

7-8절: 불신자의 보상

1. 타오르는 불(마25:41; 계14:10-11, 눅16의 부자)
2. 파라오, 하만, 다니엘
3. 사랑 많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 호수에 넣을 수 있을까?
4. 암에 걸린 환자 이야기: 건강하기 원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암을 제거해야 한다. 그것이 사랑
5. 하나님의 의는 죄와 함께 거하지 못한다. 죄를 정죄해야 한다.
6.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만큼 죄를 미워해야 한다.
7. 노아 당시 8명, 롯 당시 4명, 가나안 족속 멸절 명령
8. 이 심판은 7년 환난기 이후에 일어난다(살후4:13-19와 다르다).
   a. 하늘에, 땅에
   b. 환난기 이전, 이후
9. 하나님의 진노는 확실하다(롬1:18-20).
10. 믿음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롬1:5; 16:26).
11. 이 믿음은 들어야 온다(롬10:16-17).

9절: 불신자의 보상: 주님의 영과 앞에서 영원히 떠나는 것

1. 주님의 재림 때 파멸됨, 천년왕국 시작(사66:23-24; 막9:44-50)
2. 이 사람들도 영원히 살아 있다.
3. 둘째 사망(계20:11-15)

10절: 불신자들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는다.

1. 그래서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살후2;2)
2. 둘째 사망(계20:11-15)

11-12절: 바울의 기도

1. 그러므로, 성도의 안식, 불신자의 형벌,
2.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살후2:13-14):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다.
3. 하나님의 선하심을 권능으로 성취: 성도의 충전 혹은 충만
4. 예수님의 이름이 성도들의 현재 삶에서 영광을 받음: 은혜에 따라, 즉 은혜를 많이 입음으로
5. 그 결과 성도들도 영광을 얻음(롬8:18)

살전/살후 강해 15: 살후2:1-8(살후 마2)

10월 1일, 오레곤주 로즈버그 소재 엄프콰 커뮤니티칼리지, 크리스 머서, 총기 난사, 최소 10명 사망, 20명 부상, 강의실로 들어와 종교 묻고 기독교라고 하면 "이제 곧 하나님을 만날 테니 죽어봐라." 머리에 가격, 다른 사람들은 다리 사격

모슬렘, 불교도, 카톨릭, 불신자, 동성애자 OK, 기독교인과 유대인만 No!

며칠 전 UN 총회, 교황 방문, 종교 지도자들, 세계 정치, 종교, 경제, 환경 모임, 모두 기독교 반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동성애, 모슬렘, 이란), 도널드 트럼프, 3번 결혼, 부인이 누드모델, 조지 워싱턴

미국의 루터교, 카톨릭과 믿는 같다고 선언함, 루터의 심정이 어떨까?

웨슬레의 감리교, 동성애 목사, 종교 통합, 웨슬레의 심정, 장로교 동성애 목사 인정, 제네바 철권통치 칼빈,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모두 재림의 징조들, 정신을 차려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벧전5:8-9).

재림

창조 이래로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질 가장 큰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이다.

구약성경의 핵심 주제: 메시아가 오셔서 왕국 통치(대언서), 첫 아담의 모든 것 회복, 주의 날

신약성경은 300회 이상 실질적이고도 영광스러우며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절정이 될 재림에 대해 말한다.

재림은 7년의 기간을 포함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비밀리에 공중에 강림하시는데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 있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려져서 그분을 만날 것이다. 휴거(요14:1-3).

그리고 7년 동안 불신자들을 향한 극심한 환난이 이 땅에 임한다(마24:21). 7년 뒤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과 천사들을 이끄시고 하늘에서 땅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자신이 승천하셨던 올리브 산에 자신의 발을 디디실 것이다(슥14:4). 이 단계는 보통 현현, 지상 강림 혹은 좁은 의미의 재림

휴거: 사도 바울,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열렬히 사모하며 기다린 것(고전15:51-53)

데살로니가 교회, 3-4주 동안 하나님의 진리 강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창조, 사탄, 마귀들, 죄, 구원, 성화, 교회, 재림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 동포들의 핍박,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혼란: 부활, 휴거가 끝나고 이미 환난기가 시작된 것은 아닌가? 살전4-5장에서 자세히 설명, 지금 당하는 것은 7년 환난이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 살후를 기록함

살후에서는 재림 이전에 이 세상에 있어야 할 명확한 징조들을 제시함.

우리는 재림을 믿는가, 휴거를 믿는가? 무엇으로 믿는가? 말씀으로. 〈재림 전의 세상 징조〉

바울의 간청

1-2절: 바울의 간청, 형제들아, 구원 받았으나 재림에 대해 혼동에 빠진 성도들아, 내가 간청한다.

간청의 근거: 예수님이 확실히 오신다.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인다(살전4:16-17). 맹세 형식

간청 사유(2절): 영, 말, 우리의 편지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불안해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자들이 영(대언, 꿈, 각종 계시), 말(설교), 위조 편지

여기에 넘어가는 자들: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한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 교리가 확실치 않으므로(엡4:14)

재림으로 불안을 조성하는 자들은 심령에 화인을 맞은 자들(요14:1), 결국은 돈벌이, 패가망신

기독교의 핵심은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다. 초조, 불안, 슬픔, 부정적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께서 권능을 보이시고 영광을 받는 시기, 이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마귀의 그리스도가 존재함, 사람들(특히 유대인들)이 선택을 해야 함. 휴거 이후 7년의 환난기+1000년

3절: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마24:4-5)

속지 않으려면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날 즉 환난기는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은 뒤 죄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면서 시작된다.

'떨어져 나가는 일'은 무엇인가? 배도 혹은 휴거

1.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믿음에서 떠나는 배도'라고 이야기한다. 가짜 교회의 배도
이 경우 종교 통합, 빌리 그래함, 조엘 오스틴, 릭 워렌, 우리나라에서도 WCC, NCC
교황이 온 세상에 다니면서 행하는 일: 종교 통합, 그가 가장 미워하는 그룹: 성경 신자.
이러한 일들을 위해 성경 변개 필요: NIV, 개역개정 범람, "교회가 교회가 아니다." 행위 구원
2. 휴거로 보는 견해, 믿는 자들이 떨어져 나간다. 진짜 교회가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a.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권능을 입은 자(9-10)
b.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자기를 하나님라고 부른다(4). 한 번도 이런 자가 없었다.
c. 그런데 이 일이 생기는 것을 무언가(중성)가 막고 있다(6). d. '지금 막고 있는 이' 남성 인격체(7)
e. 그는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계획의 한중간에서 옮겨진다.
f. 그러면 이 인격체는 적그리스도에게 권능을 부여하는 사탄보다 힘이 강해야 한다.
g. 우주 공간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 누구실까?
h. 6절의 '저지하다'(withhold)는 큰 힘을 쓰지 않고도 막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것이 있으면 마귀는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다.
i. 7절의 '막는다'(let) 역시 애쓰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을 뜻함. 영어에서 창1:3, 빛이 있으라(Let there be light), 궁창, 해와 달과 별들, 동식물, 모든 것 창조, Let, 전혀 힘들지 않음
j. 이런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옮겨지셔야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교회는 성령님이 내주하는 모임, 교회가 약해도 저지하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
k. 성령님은 창조 사역 이래로 이 땅에 계신다. 환난기에도, 천년왕국에도 계신다.
l. 그런데 교회 시대에는 현재 성도들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신다.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령님의 내주 사역이 끝난다. 내주는 오직 교회와만 상관이 있다.
m. 성령님의 내주가 끝나는 일이 곧 교회의 휴거이다. 그래서 환난 전 휴거이다.

적그리스도(4)

4절: 다니엘의 70이레(단9:24-27), 70이레 490년, 이미 69이레의 483년이 지났음.
한 이레 7년이 남은. 27절 설명, 마24:15
이 일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 필요. 영해해서 성전을 교회라고 안 된다. 유일한 성전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한다. 1948년 5월, 1967년의 6일 전쟁(예루살렘 구시가지 확보), 성전을 짓기 위해 모든 노력, 성전 재단, 최근에 붉은 암송아지 재생 성공(민19:2-3, 9), 이 재가 있어야 속죄를 위한 정결한 물을 만들 수 있다. 휴거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다.〈유튜브 적그리스도의 정체〉

그리스도의 재림(8)

성령님과 교회가 옮겨지면서 드디어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남, 그 결과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참(계4-19장)
그는 주님의 재림에 의해 멸망당한다.
마귀의 영들이 아마겟돈으로 군대를 모으지만(계16:12-16), 6째 금병 심판
모두 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 즉 말씀으로 멸망당한다(계19:15).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불 호수

적그리스도의 일(9-10)

그는 사탄에게서 권능을 부여 받아 사탄처럼 활동한다(계13:2 용이 그에게 권능과 권세를 줌).
42달 동안 하나님과 하늘에 거하는 그분의 성도들을 모독함(계13:6).
땅에서 권능,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 불의의 모든 속임수, 유튜브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 그리고 베리칩〉
마지막 시대의 징조: 오순절 은사주의 표적, 이적, 금가루, 금이빨, 헤븐리터치, 자빠지는 것 등
적그리스도에게 속아 넘어가는 자들(10):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함
표적과 재물과 만사형통이 기독교가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마12:39), 진리는 예수님
심지어 하나님이 강한 미혹을 보내매 그들이 거짓말을 믿음(12). 그 결과 정죄를 받음(13).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잘못됐음: 샤머니즘이 아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쁜가? 이게 기독교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살전/살후 강해 16: 살후2:1-17(살후 #3)

데살로니가 교회, 3-4주 동안 하나님의 진리 강해, 교회 설립
로마 및 동포들의 핍박, 성도들의 혼란: 부활, 휴거가 끝나고 이미 환난기가 시작된 것은 아닌가?
바울인 이미 살전4-5장에서 휴거와 주의 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 지금 당하는 것은 7년 환난이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 그래서 살후를 기록함.
살후에서는 재림 이전에 이 세상에 있어야 할 명확한 징조들을 제시함.
1-12절은 2주 전에 설교 형식으로 강해함. 오늘 다시 요약/정리함

1-2절: 바울의 간청

간청의 근거: 예수님이 확실히 오신다.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인다(살전4:16-17).

간청 사유(2절): 영, 말, 우리의 편지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불안해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께서 권능을 보이시고 영광을 받는 시기

이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마귀의 그리스도가 존재함,

사람들(특히 유대인들)이 자신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함: 정확히는 휴거 이후 7년의 환난기+1000년

3절: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마24:4-5)

그리스도의 날(환난기)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은 뒤 죄의 사람(적그리스도)가 드러나면서 시작된다.

'떨어져 나가는 일'은 무엇인가? 배도 혹은 휴거

1. 대부분은 이것이 '믿음에서 떠나는 배도'라고 이야기한다. 가짜 교회가 떨어져 나가는 것
   a. 종교 통합, WCC, NCC, 교황 등
   b. 성경 변개 필요: NIV, 개역개정 범람, "교회가 교회가 아니다."
   c. 행위 구원
2. 휴거로 보는 견해, 믿는 자들이 떨어져 나간다. 진짜 교회가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a.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권능을 입은 자(9-10)
   b.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자기를 하나님라고 부른다(4). 한 번도 이런 자가 없었다.
   c. 그런데 이 일이 생기는 것을 무언가(중성)가 막고 있다(6).
   d. '지금 막고 있는 이' 남성 인격체(7)
   e. 그는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계획의 한중간에서 옮겨진다.
   f. 그러면 이 인격체는 적그리스도에게 권능을 부여하는 사탄보다 힘이 강해야 한다.
   g. 우주 공간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 누구실까?
   h. 이런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계획에서 옮겨지셔야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교회는 성령님이 내주하는 모임, 교회가 약해도 저지하는 힘을 발휘함
   i. 성령님은 창조 사역 이래로 이 땅에 계신다. 환난기에도, 천년왕국에도 계신다.
   j. 그런데 교회 시대에는 현재 성도들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신다.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령님의 내주 사역이 끝난다. 내주는 오직 교회와만 상관이 있다.
   k. 성령님의 내주가 끝나는 일이 곧 교회의 휴거이다. 그래서 환난 전 휴거이다.

4절: 다니엘의 70이레(단9:24-27), 70이레 490년, 이미 69이레의 483년이 지났음.

한 이레 7년이 남은. 27절 설명, 마24:15

이 일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 필요. 영해해서 성전을 교회라고 안 된다. 유일한 성전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한다. 1948년 5월, 1967년의 6일 전쟁(예루살렘 구시가지 확보), 성전을 짓기 위해 모든 노력, 성전 재단(Temple Institute), 최근에 붉은 암송아지 재생 성공(민19:2-3, 9), 이 재가 있어야 속죄를 위한 정결한 물을 만들 수 있다.

환난기 성전(Tribulation temple)에 관하여: 솔로몬의 성전 식으로 지으려면 오래 걸린다. 그러나 성막과 같은 텐트 식으로 지으면 1주일이면 짓는다. 이미 모든 것이 예비 되어 있으므로

그러므로 텐트 식으로 지어서 예물을 드리게 하면서 성전 식으로 지을 수도 있다.

5절: 바울이 이미 이에 대해 이야기함

6-7절: 교회와 성령님, 이미 설명함

8절: 그리스도의 재림(현현, 지상 강림, 올리브 산)

성령님과 교회가 옮겨지면서 드디어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남: 그 결과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참(계4-19장)

그는 주님의 재림에 의해 멸망당한다.

마귀의 영들이 아마겟돈으로 군대를 모은다(계16:12-16). 6째 금병 심판

그러나 모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말씀)으로 멸망당한다(계19:15). 힘 한번 못 쓰고 불 호수

9-10절: 적그리스도의 일

그는 사탄에게서 권능을 부여 받아 사탄처럼 활동한다(계13:2 용이 그에게 권능과 권세를 줌).

42달 동안 하나님과 하늘에 거하는 그분의 성도들을 모독함(계13:6).

땅에서 권능,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 불의의 모든 속임수

마지막 시대의 징조: 표적 부흥의 오순절주의 등장(20세기 초, 아주사 거리, 온 세상 확산)

표적, 이적, 금가루, 금이빨, 헤븐리터치, 자빠지는 것 등

신사도 운동: 사도 시대가 끝났는데 신사도들이 등장함

원래 표적의 목적: 성경이 없던 시대에 말씀 확증(막16:20; 히2:1-4)

말씀의 검으로 물리쳐야 한다(엡6:17)

10절: 적그리스도에게 속아 넘어가는 자들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함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히 죽는다(계12:9-11).

표적과 재물과 만사형통이 기독교가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마12:39), 여기의 진리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잘못됐음: 샤머니즘이 아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11-12절: 심지어 하나님이 강한 미혹을 보내매 그들이 거짓말을 믿음. 그 결과 정죄를 받음.

명백한 진리를 거부하면 결국 거짓에 넘어갈 수 있다.

마귀: 거짓의 아비, 창시자, 신들과 같이 된다(창3:5).

결국 롬1:18의 진노와 저주

살후2:12 인용, "휴거 전에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은 환난기에서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가?"

아니다!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환난기에서의 구원은 대단히 힘들다: 짐승의 표 안 됨. 도망 다녀야 함. 잡히면 순교해야 함.

그럼에도 적그리스도의 실상을 안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기에 구원받는다(계7:9-17).

상대적으로 쉬울 때 구원받지 못하면 어렵다.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을 사람들이 매우 많다(계9:20-21)

무저갱에서 메뚜기들이 올라와 엄청난 고통을 줌(계9:5-6).

사람들의 3분의 1일 죽음

마귀의 천사들이 땅에까지 쫓겨 내려옴(계12:7-9). 노아의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남

13절: 그러나 성도는 이런 데서 자유롭다. "그러나"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선택은 미리 아심에 근거함(벧전1:2): 미리 아심, 사랑, 선택, 구분, 소명, 영광

우리가 할 일은 진리를 믿는 것: 12절의 사람들과 대조

14절: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다: 공동 상속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함

15절: 사도는 서신으로 좋은 전통들을 가르쳤다: 쓸데없는 전통들: 사순절, 부활절, 성탄절, 목사(교황) 숭배, 마리아 및 성인 숭배, 통성기도, 주여 3창, 축도, 사도신경, 주기도문, 율법의 십일조

16-17절: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말과 일에서 그들(성도들)을 굳게 세우신다.

살전/살후 강해 17: 살후3:1-14(살후 #4)

환난기(그리스도의 날) 시작 전의 사건: 적그리스도의 등장

환난기: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황폐하게 함. 멸망당함

그의 표적, 기적, 놀라운 일들

불신자들이 속아 넘어간다. 이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12)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미리 아심에 의해 선택을 받고 성령님의 구분, 부르심을 받아 영광에 이른다.

이들은 진리를 믿는 자들(13), 특징;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전통을 굳게 붙듦(15)

그 결과 선한 말과 선한 행위가 나온다(16).

바울의 기도 요청

1절: 사도는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다.

첫째, 주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갖도록(딤후2:9; 엡6:19; 골4:3).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다(히4:14). 움직인다. 이것을 막으려는 자들이 있다.

자유로운 행로를 막는 집단: 천주교, 이슬람, 동방 정교회, 공산주의, 몰몬, 진화론 등의 인본주의

심지어 개신 교회들 가운데도 있다(동성애 인정, 종교 통합 추진).

말세에는 말씀의 행로를 막는 자들이 득세한다.

특히 천주교회와 교황의 행보에 주목해야 한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 마귀의 걸작품

행위 첨가, 우상 숭배, 말씀 혐오, 부패한 성경의 출처

사람의 구원과 성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렸다(롬10:17).

말씀이 전달되지 않으면 안 된다(롬10:14-15): 파송, 선포, 들음,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사55:6-7, 10-11)

사람의 변화(딤후3:16-17)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된 사람들의 삶에서 영광을 나타낸다. 비시디아 안디옥(행13:48-49).

그리스도의 일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최소한 우리 교회는 그리해야 한다.

우주의 창조: 말씀으로, 우주의 유지: 말씀으로(히11:3)

목사의 말씀 선포와 교회 모든 성도들의 전달

말씀이 효력을 잃을 때 프로그램과 기법이 동원된다.

"목사의 사명은 염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잘 먹이는 것이다."

양들이 잘 먹으면 사랑과 기쁨 속에서 양들을 낳고 목자를 잘 따른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 설명할 수 있으면 사람의 일이다."

반대로 잘 먹지 못하면 갈등과 문제가 표출되고 떠나가는 일이 생긴다.

교회의 최우선 사명: 말씀 선포, 목회자의 성공 여부: 말씀 선포

2절: 둘째, 부당하고 사악한자들에게서 구출되도록

말씀의 행로를 막으며 부당하게 사악하게 구는 자들이 있다.

사도행전을 보면 종교에 매인 유대인들이 행로를 막는다(행14:1-5).

누가 구원을 가장 싫어하는가? 카톨릭 교인들

누가 킹제임스 성경을 가장 싫어하는가? 전통에 매인 성도들

구원받고도 악한 행위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있다: 아니니야와 삽비라(행5:1-11)

마귀는 심지어 베드로를 통해서도 주님을 시험한다(마16:21-23).

교회에서 정치하는 자: 디오드레베(요삼9), 이민 교회의 목사 수난

또한 원래 악한 자들이 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딤후4:14)

제멋대로 행하며 헛된 말을 하는 자들(딛1:10-11, 16)

또한 정치인들이 행로를 막는다(아그립바, 베스도 등).

결론: 모든 사람이 믿음을 소유하지는 않는다. 조심해야 한다.

3절: 주님의 신실하심, 그 결과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살전5:24).

사도 바울의 예(딤후4:17-18)

우리가 신실하기를 원하신다(눅19:17):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다."

4절: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말씀을 날라야 한다.

바울이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들이 서신서에 들어 있다. 여기의 명령은 군대 용어

교회는 질서 있게 주님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질서는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 예배, 교제, 교육, 행정, 식사, 청소 등

여기에는 훈련이 필요하다.

병사가 자기가 원하는 때에만 훈련에 참가하면 싸움을 이길 수 없다.

목사와 리더들이 성경적으로 인도하고 가르치면 따라야 한다.

성도들은 서신서의 명령들을 행하고 앞으로도 행해야 한다.

딤후2:1-2

5절: 고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더욱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인내하며 재림을 기다릴 것을 기도함

일반 군대: 충성심과 두려움 때문에 복종한다.

그러나 주님의 군대는 사랑(요14:15)과 재림의 소망 때문에 복종한다.

데살로니가전후서의 요점: 주님이 오신다.

우리에게 보상이 있다(딤후4:7-8).

1. 진리를 믿고, 2. 지키고. 3. 행하고, 4. 나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마6:33을 믿으라.

살전/살후 강해 18: 살후3:6-18(살후 #5)

살후 마지막 부분: 1-4절은 기도 요청, 6-18절은 분리 실행과 게으름에 대한 경고

6-7절: 모델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문제 성도들이 있었다. 모든 교회에 문제가 있다.

질서 없이 걷고, 바울의 전통대로 걷지 않는 형제들이 있었다. 이들은 형제들이다.

여기의 전통은 살후2:15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글로 말로 전달한 명령들이다.

헛된 전통은 안 된다(마15:1-6): 이것들은 사람들 특히 종교인들의 전통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쓸데없는 것들이 있으면 곧바로 없애야 한다.

지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질서, 영혼의 자유가 무질서와 방종으로 나타나면 하나님께 불명예

바울은 본인 스스로 질서 없이 행동하지 않았다고 말한다(7).

방언 등의 문제: 질서(고전14:27-33, 39-40)

교리, 남녀 질서, 음악, 옷, 아이들 교육, 음식 배분

질서가 무너져서 무정부 상태가 되면 교회는 못한다.

그래서 엄중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3중 이름)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명령한다.

그리스도인의 분리: 화해하려고 노력하되 되지 않으면 떠나야 한다(롬16:17-18; 엡5:10-12).

8-12절: 질서 있게 걷는 자들과 무질서하게 걷는 자들의 특성 비교

바울의 사례: 1. 거저먹지 않았다. 2. 폐를 끼치지 않았다. 3. 밤낮으로 수고하였다.

원래 목회자는 사례비를 받아야 한다(고전9:6-14; 눅10:7; 갈6:6; 딤전5:17-18).

목회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전임 사역자다.

그러나 전임 사역이 방종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

특히 독립 교회의 경우 일반 교회와 달리 시간이 많다(새벽기도, 각종 모임 등 최소화).

그러므로 이런 시간을 잘 활용하여 개인의 경건, 독서, 상담, 말씀 준비에 철저해야 한다.

특히 경건 서적을 많이 읽고 설교를 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목회자는 꼭 바울처럼 일하면서 목회해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거저먹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할 게 없으니까 목회를 해야겠다." No!

스펄전: "세상의 다른 일에 유용하지 않으면 목사는 더더욱 안 된다."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 성도들이 본을 받도록(9; 살전2:9-10), 그 결과(살전2:13)

바울의 사례를 들어 목회자에게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 것 역시 무질서

성경의 권고(10-12): 노동은 죄를 짓기 전에 사람이 한 일(창2:15)

노동은 처음에는 선한 것이었으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 저주로 바뀌게 되었다(창3;17-19).

그러나 노동의 본질은 저주가 아니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도구.

원래부터 사람은 일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원래 일주일의 6일은 일하고 하루를 쉬게 되어 있다(출20:8-10).

그러므로 성도나 목사는 부지런해야 한다.

솔로몬의 권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잠6:6-11).

일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야곱의 예(창30:40-41), 20년

요셉, 모세, 다윗, 예레미야, 에스라, 다니엘, 예수님, 바울, 디모데 등

마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등: 모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가 발탁됨.

올바른 기독교가 들어가면 산업 발전, 인류 복지 증진

우리나라의 경우: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로 학교, 병원, 복지, 남녀평등, 헌법 정신

그래서 원래 일주일의 6일은 일하고 하루를 쉬게 되어 있다(출20:8-10).

일을 할 수 없는 성도들만 구제 대상(약2;14-17; 요일3:16-18)

13절: 잘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갈6:9).

성도의 삶은 항상 즐거움만 있지 않다.

특히 분리해서 살려면 힘들다.

14-15절: 분리와 징계의 방법(마1815-20)

본인에게 직접, 2-3 사람, 교회, 출교

그럼에도 그는 형제다. 헤어질 때 신사답게 행동해야 한다.

헤어져도 가능하면 좋은 것을 말하라.

힘든 사례: 1. 교리 문제(성경, 구원, 환난기 통과 등), 2. 심각한 죄(갈6:1), 3. 항시 문제 성도(딛 3:10): 당을 짓는 것, 고린도 교회의 문제, 4. 공개적인 불륜(고전5)

모든 문제 성도를 출교하면 안 된다.

징계와 출교 등은 권면, 교육 등을 다 해도 안 되는 경우의 최종 조치: 남은 성도들 보호

16절: 평강의 하나님(롬5:1)

기독교의 본질: 평안, 화평, 평강(살전5:23)

17절: 바울의 서신 마감(롬16:22; 고전16:21; 골4:18)

18절: 예수님의 은혜